

세계적 육종학자의 삶, 원고지에 담다

농진청, 우장춘 박사 관련 '어린이 글짓기 공모전' 열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초대 원장이자, 세계적인 육종학자인 우장춘 박사의 삶을 기리기 위해 '우장춘 박사를 아세요? 어린이 농업·농촌 글짓기 공모전'을 연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들에게 우리나라 원예 연구의 기틀을 마련한 우 박사의 업적을 알리고 농업과학의 중요성과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알리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공모 기간은 12일부터 6월 28일까지

이다. 응모 분야는 산문 1가지이며, 초·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제는 '우장춘 박사와 나'이며, △내가 만약 육종학자라면(내가 '우장춘' 박사라면 상상해 보기) △우장춘 박사의 도전과 나의 도전 △농업과학이 바꾼 우리의 일상 3가지 작은 주제 가운데 하나를 골라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작품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www.nhfs.go.kr → 알람창[팝업창])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 수상자(1명)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문화상품권 50만 원, 최



우수상 수상자(1명)에게는 농촌진흥청

장상과 문화상품권 30만 원을 수여한다. 우수상(3명)과 장려상 수상자(10명)에게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상과 각각 문화상품권 20만 원, 10만 원을 지급한다.

수상자는 7월 17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에서 발표하고 시상식은 우장춘 박사 서거(8.10.) 하루 전날인 8월 9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세계적인 육종학자인 우장춘 박사의 삶과 그의 도전을 알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들이 우리 농업과학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농협은 최근 시온성교회에서 제3회 농민훈장 수여식 및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운영공개'를 마쳤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농업인'

전주농협, 제3회 농민훈장 수여식 · 2023년 결산 운영 공개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최근 시온성교회에서 관내 조합원과 임·직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농민훈장 수여식' 및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운영공개'를 성황리에 마쳤다.

전주농협에서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민훈장 수여식은 애국가 농업인의 숭고한 헌신과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리는 것과, 이러한 농업인에 대한 예우를 우리사회에 일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대우 받도록 함에 있다고 전주농협은 밝혔다.

제3회 농민훈장 수여식에서는 총 16명의 수상자 분에게 농민훈장을 수여했고 이어 전주농협의 박건 후 경영지원본부장으로부터 2023

년도 결산에 따른 경영전환에 대한 운영공개 순으로 진행 되었다.

전국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전주농협의 농민훈장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인식하고 애국가인 농업인 조합원의 노고를 격려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2024년도부터 시행하는 무병장수 기원사업'은 농민 조합원의 건강을 기원하는 취지로 59세 이상의 조합원 약 5,500명에게 소고기와 미역국 등 생일꾸러미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조합원별 담당직원을 배정하는 '조합원 건강지킴이' 담당제를 도입함으로써 조합원에게 감동을 주는 농협으로 거듭나고 있다.

/김옥기 기자

경진원-조인앤조인, 기업의 전북 이전 지원 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과 MZ세대를 타겟팅하는 푸드테크 스타트업인 조인앤조인(대표 진해수)은 상호간 업무협력을 위한 MOU를 11일에 체결했다.

조인앤조인은 난백, 버터, 우유 등의 대체식품을 연구해 비건식품을 개발·제조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병아리콩 부산물로 만든 제과제빵이다. 특히 국내 비건시장을 주도하는 MZ세대를 타겟으로 한 비건 디저트의 성장세를 전년도 매출액 150억원대를 달성했으며, 올해 매출액은 4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해수 대표는 "농생명·식품 자원이 풍부한 전북도에서 우리의 배합과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푸드테크 기업인 '조인앤조인'은 MOU를 11일 체결했다.

배양 기술을 바탕으로 푸드테크 ESG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

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경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자리 잡기를 희망하는 전도유망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이전 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번 상호 협력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 △이전 희망기업 신속 이전 추진 위한 행정업무 지원 등 △기업 이점을 위한 지원사업 연계 및 정보 제공 등이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전북도가 글로벌 푸드테크산업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전북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의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창업교육부터 사업화 지원까지... 바이오진흥원, 바이오식품 창업아카데미 추진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바이오식품산업 창업활성화를 위해 2024년 창업아카데미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바이오진흥원이 2019년도부터 매년 30여명 규모로 시행해 온 창업아카데미 교육은 전북자치도 푸드테크 기업의 창업단계별, 분야별 집중육성 계획 및 창업수요 증대에 따라 올해 4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급일 농식품 창업아카데미 1기(20명) 과정 발대식을 시작으로 6월까지 교육, 멘토링, 현장실습, 사업 아이디어 평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단계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맞춤형 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을 진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진흥원은 바이오식품산업 창업활성화를 위해 2024년 창업아카데미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행하고 참여자 전원이 창업사업계획서, R&D 계획서, 사업 제안서 등 최소 1건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회 제공,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유관기관 지원프로그램 연계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화 촉진을 위해 라이브커머스 박람회 현장 실습도 진행하고 있다.

창업아카데미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아이디어 평가회 등 경진대회를 통하여 연말에 우수사업화 기업 시상식을 진행하고 사업화 지원금(최대 2천만원)도 지원한다.

창업아카데미 2기 추가 모집은 4~5월 중 진행 계획이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바이오·식품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준비 단계부터 창업 성장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 창업하기 좋은 전북, 사업하기 좋은 전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한전 전북본부, 중대재해처벌법 특별 안전교육 시행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원원섭)는 지난 3일과 8일 2회에 걸쳐 본부 강당에서 안전업무담당 직원과 관내 송배전 협력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최은나 과장)을 초빙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특별 안전교육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는 지난 3일과 8일 2회에 걸쳐 안전 담당 직원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특별 안전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협력회사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한전과 협력회사 모두가 협업체 산재예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 법령에 의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의 역할에 대하여 교육했다.

이러한 안전관리 강화 교육을 통해 모든 참석자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한전 전북본부는 협력회사와 함께 안전문화를 체화시켜 산업재해가 없는 작업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안전관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